

지금은 에너지결약시장에 대한 민간투자를 생각할 때



유재인 회장
(사)에너지절약전문기업협회

에너지절약전문기업과 관련한 전문투자조합은 현재 3호까지 설립돼 활동 중입니다. 1999년 40억원 규모로 1호조합이 산은캐피탈을 주관사로 설립됐고, 2000년에는 플래티넘기술 투자가 주도하는 2호조합이 33억원 규모로, 그리고 2001년에는 50억원 규모의 전문투자조합이 결성되었습니다. 이렇게 에너지절약 전문투자조합이 설립된 것은 ESCO사업을 활성화하지는 취지 아래 당시 사업을 확장하면 할수록 부채비율이 급격히 높아짐으로써 곤란을 겪고 있던 중소ESCO들에게 도움을 주자는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각 조합이 결성돼 활동에 들어간 결과, 1호조합은 중소ESCO 2개사를 코스닥에 상장시키는 경험을 갖게 되었으며, 29억원의 배당을 통해 180%대의 수익률을 기록하는 결과를 낳기도 하였습니다. 매우 실험적인 수치라는 것을 감안해야 하겠지만, 이러한 결과치만 놓고 볼 때 에너지절약시장에 대한 잠재성을 확인하기에는 충분한 결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최근의 일이지만 에너지절약시장을 바라보는 투자자들의 시각이 현저히 달라졌음을 느끼게 하는 뉴스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신고유가 시대의 도래와 함께 기후변화 협약 등 인류가 공동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 가운데 에너지자원의 효율적인 개발 및 사용과 에너지시스템의 고효율화, 친환경화는 피할 수 없는 대세입니다. 가장 최근에는 '탄소펀드'가 뜨고 있으며, 청정개발체제(CDM)와 관련된 각종 사업들이 에너지기업과 각국 정부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러한 각종 펀드들이 하나의 트렌드로서 일회성으로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유수의 석유메이저들이 석유나 가스자원의 확

보 뿐만 아니라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비용을 높여가고 있는 사실이 이를 더욱 뒷받침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의 사정은 아직 과실(果實)을 논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에너지절약 투자조합의 규모도 규모이려거니와 투자대상을 선별하기에도 대상의 폭이 너무 좁아 투자자들의 이목을 끌지 못한 것입니다. 그것은 에너지시장의 특수성을 생각하면 간단한 것입니다. 정부의 정책과 기업들의 기술개발 및 에너지소비자들의 이해가 없는 에너지시장은 생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조합관계자의 "투자는 부진했으나 잠재성이나 가능성을 보았을 때 긍정적 효과를 거둔 것"이라는 평가를 들어볼 때 에너지절약시장은 향후 더 큰 액수의 조합결성이나 민간자금의 유입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는 소리없는 '에너지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이 전쟁에서 한치 양보없는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각종 전략과 전술을 쏟아내고 있는 중입니다. 그 하나로 ESCO사업의 미래 잠재시장은 약 1조 3천억 원 규모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장을 제대로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이제는 정부의 정책자금 이외에 국민연금/기금 등과 같은 장기운영기금을 시장 안으로 끌어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초기 펀드투자자들에게 강력한 메리트를 부여해주어야 하며 진입비용을 낮추어 주는 제도적 뒷받침이 절대적입니다. 앞으로는 에너지를 목표로 삼는 기업이 성공할 것이고 에너지정책에 성공하는 국가가 선진국이 되는 세상이 올 것입니다. 그 첫걸음으로 검증된 ESCO사업을 확산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하는 투자자들이 늘고 그 투자를 받은 전문기업들이 늘어날 때 그 혜택은 고스란히 에너지소비자와 기업, 그리고 국가 모두에게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에너지절약시장에 대한 민간투자 확대를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때입니다.